



초파일(初八日)의 세시풍속

강 육
자유기고가

사월이라 한여름이니 입하 소만 절기로다
비 온 끝에 별이나니 날씨도 좋구나
떡갈잎 퍼질 때에 뽕새 자주 울고
보리 이삭 패어나니 꾀꼬리 소리한다
석탄일에 등 달기는 산촌에 바쁜 일 아니나
느티떡 콩찌니는 제때에 별미로다
앞 내에 물이 주니 고기잡이 하여 보세
해 길고 바람 자니 오늘 놀기 좋겠구나

조선조 현종 때 정학유가 지은 '농가월령가'의 사월령 가사이다.

여름이 다가온 것을 알리는 입하는 신록을 재촉하는 절기이다. 입하(立夏)는 24절기의 하나로 곡우와 소만 사이에 들어 있으며 음력으로는 4월, 양력으로는 대개 5월 6일 전후에 해당된다. 태양의 황경(黃經)이 45°에 이르렀을 때이다. 이맘때면 곡우에 마련한 못자리도 자리를 잡아 농사일이 한층 바빠진다. 그래서 입하가 되면 농작물도 자라지만, 아울러 해충도 많아지고 잡초까지 자라서 이것들을 없애는 작업도 많이 한다.

음력 4월 8일은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이다. 그러므로 이 날을 특별히 초파일(初八日)이라 부르며 또한 이날 밤 등불을 켜므로 등석(燈夕)이라고도 부른다. 이 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절을 찾아가 불공을 드리고 등을 바치기도 한다. 그리고 이날 밤에는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는 뜻에서 등불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연등(燃燈) 행렬이 벌어진다. 각 가정에서도 등을 달아 이 날을 기념한다. 초파일 밤은 온 시대가 연등놀이로 어두움을 모르고 밤을 밝히는 것이다.

원래 연등놀이는 정월 보름에 하던 행사였는데 고려 고종 때부터 초파일에도 하게 되었다. 또 이 때까지는 연등놀이가 국가적인 행사였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유교가 강해지고 불교가 약해져 이 행사는 초파일에만 민간에서 행해지는 풍속이 되었다.

각 가정에서는 이 날이 되기 며칠 전부터 등을 달아 맬 소나무를 세우고, 그 등대 꼭대기에는 꿩의 꼬리털을 꽂거나 색색으로 물들인 비단으로 깃발을 만들어 달았다. 그리고 이 등대에다 줄을 매어 식구 수대로, 또는 아이들의 수대로 등을 달아 불을 밝히는 것이다. 이 때 등불이 환하게 밝으면 복을 받는다고 믿었다. 등대의 장식은 가난한 집에서는 늙은 소나무 가지를 붙들어 매는 정도에서 그치지만 부잣집에서는 온갖 사치를 다 부려 멋을 냈다.

예전에는 등을 집에서 만들었으나 지금은 절에서 대량으로 만들어 팔거나 상점에서도 만들어 팔고 있다. 등의 종류도 가지각색이어서 불교의 상징인 연(蓮)꽃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연등(蓮燈)과 수박등, 마늘등, 참외등, 모란등, 잉어등, 거북등, 학등, 용등, 자라등, 가마등, 종(鐘)등, 선(船)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빛깔과 모양이 매우 다채롭다. 재료로도 종이 외에 붉고 푸른 비단을 바르기도 했으며 글씨나 그림을 그려 더욱 화려하게 장식을 했다.

이 날 불교도들은 절을 찾아가 불공을 드리고 탑돌이를 한다. 탑돌이는 초파일뿐만 아니라 8월 한가위에도 하는데 오늘날에는 점차 사라져 가는 풍습이다. 옛날 불교가 성했던 신라 때에는 전 국민이 불교를 믿어, 이 탑돌이 행사는 절정에 이르렀었다.

모든 절에는 돌로 만든 석탑이 세워져 있고 초파일이 되면 수많은 신도들이 탑이 서 있는 절간의 마당을 가득 채웠다. 절의 스님은 탑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돌아가며 불경을 외었고 신도들은 스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탑을 돌아가며 저마다 마음속으로 한 해 동안 무사태평하기를 기원한다. 또 자기가 품고 있던 소원을 석가모니에게 간절히 빈다. 부인네들은 아들 낳기를 빌고, 처녀 총각들은 시집 장가가기를 빌며, 부모님이 아픈 집 자녀들은 병이 완쾌되기를 빌었다. 여럿이 탑을 도는 모습은 엄숙하면서도 아름다운 광경을 이루었다.

연등놀이를 하는 날 저녁에는 전례에 따라서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되었다고 ‘동국세시기’는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서울 장안의 남녀들은 초저녁에 남북의 산기슭에 올라가 등을 달아놓은 광경을 구경

했다. 혹 어떤 이는 악기를 들고 장안을 쏘다니며 논다. 그리하여 서울 장안은 사람의 바다를 이루고 등불의 성(城)을 이루었다. 그렇게 떠들썩하기를 밤새도록 그치지 않는다. 이처럼 석가모니의 탄생일인 초파일은 온 국민이 기쁨과 축하를 나누었던 즐거운 명절로 오늘날 크리스마스 풍경보다도 훨씬 화려했으리라 생각된다. 이 화려한 경축행사는 조선시대까지도 계속되었고 유교를 중요시하게 되어 국가가 이를 막았어도 그 풍습이 끊일 줄 몰랐다. 특히 고려의 서울이었던 개성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성대한 연등행사를 가졌다고 전한다. 그러나 오늘날 불교신자는 많지만 초파일의 행사는 거의 다 사라지고 절에서만 등을 달고 재를 올리며, 밤에는 불교 신자들이 손에 등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연등행렬이 있을 뿐이다.

4월 초파일 아이들은 석남(石南)나무 잎을 넣어서 만든 증편과 볶은 검은 콩과 삶은 미나리나물을 등간 밑에 벌여놓는다. 이것은 석가 탄신일에 고기 없는 간소한 음식으로 손님을 청해다가 즐기는 풍속이 변한 것이라 한다. 유엽병(鑰葉餅)이라고 하는 것도 4월 초파일 절기에 해먹는 떡이다. 느티나무에 새싹이 나올 때 연한 느티잎을 따다가 멥쌀가루와 섞어 떡켜를 두툼하게 하여 찐 설기떡이다.

이 밖에도 '파강회'와 '미나리강회'를 4월 달에 즐겨 먹었다. 파강회는 파를 삶아 날고기를 속에 넣고 파 잎으로 말아서 초간장을 찍어 먹는 것으로 오늘날에도 흔히 반찬으로 만들어 먹는다. 미나리강회는 미나리를 데쳐서 파강회와 마찬가지로 날고기를 미나리 잎과 줄기로 삼아 초간장이나 초고추장을 찍어 먹는 것이다. 계절적으로 미나리와 파가 흔한 때이므로 그러한 것을 특식으로 하였다.

또 생선을 잘게 썰어 익혀 오이나물, 국화잎, 파의 싹, 석이버섯, 익힌 전복, 계란 등과 섞어 기름과 식초를 쳐서 시원하게 먹는 것을 '어채(魚菜)'라고 한다. 또한 초여름에 장미가 한창 필 때는 빛이 노란 장미를 따다 찹쌀 가루에 넣어 반죽하여 동그란 떡을 만들어 기름에 튀겨 먹는다. 이것을 꽃으로 만들기 때문에 화전(花煎)이라고 부르고, 기름에 튀기기 때문에 유전(油煎)이라고도 부른다.

24절기의 하나인 소만(小滿)은 양력으로 대개 5월 21일께가 된다. 이때부터 여름 기분이 나기 시작하며 식물이 왕성하게 성장한다. 소만 무렵에는 농촌의 일손이 더욱 분주해진다. 이른 모내기, 가을보리 먼저 베기 작업들과 여러 가지 밭농사의 김매기 들이 줄을 잇게 된다.

모판을 만들어 모내기까지 모의 성장기간이 옛날에는 45~50일이 걸렸으나, 지금의 비닐모판에서는 40일 이내에 충분히 자라기 때문에 소만에 모내기가 시작되어 1년 중 제일 바쁜 계절로 접어든다.

